

AUTHOR 현유광

TITLE 기독교교육과 신앙고백

IN 생명의 양식

기독교교육과 신앙고백

현유광 교수 | 고려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물어보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앙고백을 한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반과 중반의 약 2년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삶으로, 그리고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그 동안 듣고 보고 깨달고 믿게 된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요구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도 고백해야 한다. 신앙이 없음에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이다. 반면에 신앙이 있음에도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용)라는 사실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뿐만 아니라, 나아가 마음으로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입으로 시인(신앙고백)해야 한다. 그리할 때에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 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사는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앙고백을 요구하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10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시인하여’ 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법적인 힘으로써 하나의 관계를 정리하는 구속력 있는 공적 선언”을 나타낸다. 당시 로마 정부는 “가이사(Caesar)는 나의 주(主, κύριος)이시다.”라는 공적선언을 사람들에게 강요했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따랐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고백이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도 고백해야 한다. 신앙이 없음에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이다. 반면에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고백을 요구한다. 그 고백은 일차적으로는 입으로 표현되고, 다

음으로는 삶을 통해서 현현(顯現)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복음은 탈색(脫色)되고 있고, 기복주의와 성장주의의 복음이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성경의 중심 내용은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는 듯하고, 이에 대한 신앙고백은 교인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유혹에 뿌리가 없는 많은 교인들이 흔들리며 넘어가고 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모임이 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천주교 35.2%, 불교 31.1%, 그리고 개신교는 18%로 답했다. 종교가 없는 사람 가운데 개신교를 가장 신뢰한다는 비율은 7.6%에 불과했다. 개신교만 놓고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18.4%, '신뢰하지 않는다' 48.3%였다. [http://www.trusti.kr/ 교회신뢰도여론조사발표세미나_자료집_full.pdf 참고]

이러한 일반인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의 신앙고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 글을 써 보고자 한다.

기독교 교육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일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성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독교교육이란?

기독교 교육이란 가정, 교회,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함

교육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배우는 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가르치는 자의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교육 활동은 두 가지 면이 있다. 즉,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학생들에게 주입(注入) 또는 전달하는 활동(impression)이 있는가 하면, 배우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숙지(熟知)하고 내면화(內面化)하여 몸으로도 삶으로 표현(expression)하는 활동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에 교육은 온전해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시신 후에 제자들이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신앙고백을 하게 하신 것에서 이것이 잘 드러난다.

기독교 교육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일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성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데서 출발하며, 궁

극적으로 그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도록 돕는 교육활동이다.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至上命令)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8:19-20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제자를 삼는 일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제자 삼는 일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다. 수세자(受洗者)는 한 지역교회의 세례교인이 된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며 지키는 사명을 받게 된다. 이 사명은 이웃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전도적 사명)과 성경적인 문화를 사회에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일(문화적 사명)을 포함한다. 주님의 분부하신 것을 내가 먼저 배우고 지키며,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은 삶을 통한 신앙고백이라고 하겠다.

긍정적인 변화

교육은 배우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활동이라고 앞서 언급했다. 긍정적인 변화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신앙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겠는가?

교사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며, 또 장차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믿음이 자랄 수도 없다.

앎의 변화

교사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며, 또 장차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person and works)에 대해 알지 못하고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믿음이 자랄 수도 없다.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부모나 교사는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스스로 읽게 하며, 성경과 교리(신앙고백서 또는 요리문답), 그리고 교회사(教會史)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느낌의 변화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때에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는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교사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심리와 감정 등)을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은 전염한다. 스페인 속담에 “내가 불붙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불붙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학생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사람의 심금(心琴)이 울리지 않고는 진정한 의지(意志)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의지적(意志的)인 변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될 때에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기도 한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헌신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지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예화(例話)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성경의 교훈을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적용할 때에 의지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믿음이란, 지식의 변화에서 출발하여 감정의 변화로 발전하고 의지적인 변화에서 일단 완성된다.

감정의 변화에서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의지적인 변화는 신앙고백을 가리킨다. 의지적인 변화는 주로 입으로 하는 신앙고백이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니,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등이 있을 것이다.

행동의 변화

그리스도인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행동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신앙적인 행함은 때로는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삶에 정착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현실이다. 삶을 통한 신앙고백이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것에서 드러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성경의 교훈을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적용할 때에 의지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믿음이란, 지식의 변화에서 출발하여 감정의 변화로 발전하고 의지적인 변화에서 일단 완성된다.

신앙고백(교리서)의 기능

신앙고백은 개인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교회의 교리(신앙고백과 요리문답)를 통해서 천명(闡明)되기도 한다. 교회는 성경의 중심 되는 교리를 검증하여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서를 제정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교리서의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종교개혁 이후의 교리서의 주요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성례로 되어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1536), 《제1차 신앙교육서》(1537), 《제2차 신앙교육서》(1541)를 중심으로 교리(doctrina,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 등)의 필요성과 교리교육의 당위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교리적 준비

믿음은 성경을 아는 것을 기초로 생겨나고 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은 구원과 관계된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또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이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검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공적인 신앙고백서를 마련하고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이 교리적으로 준비시키는데 사용한다.

삶의 지침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다운 생활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부도덕한 일을 버리고, 참된 경건에 도달해야 한다. 교회의 교리서는 성경의 진리를 집약시킨 것으로서 단순히 무엇을 믿을 것인가만을 취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행함까지도 포함시킨다. 따라서 교리서는 구원 받은 성도의 삶의 지침으로 존재한다.

성경에 대한 이해

교리서의 중요한 존재목적 중 하나는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모순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의 가르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상호 충돌하는 것 같은 가르침에 대해 교리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신앙을 변호

칼빈의 경우 《기독교강요》같은 대작(大作)을 통해서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개혁자들이 믿는 교리를 변증하였다. 칼빈은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교리서를 잘 공부함으로써 그들 자신과 교회의 신앙을 변호할 수 있기를 원했다. 교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구원의 도리를 믿지 않는

교회의 교리서는 성경의 진리를 집약시킨 것으로서 단순히 무엇을 믿을 것인가만을 취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행함까지도 포함시킨다. 따라서 교리서는 구원 받은 성도의 삶의 지침으로 존재한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세상에 대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필요하다.

교회 지도자 양성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 같은 교리서는 부모들과 신학지망생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도구로서 활용된다. 교리서는 가정과 교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잘 이해함으로써 바른 가르침이 널리 확산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신앙고백의 일치

교회가 공인하는 교리서가 있게 될 때에, 하나의 지역 교회 안에서 동일한 신앙고백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앙고백 공동체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나아가 모든 개혁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교리서를 채택하게 될 때에 이를 중심으로 일치를 이루고, 그 일치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회와 신앙고백(교리) 교육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며, 교리서의 기능이 무엇인

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21세기 한국교회가 신앙고백 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교리교육의 회복

칼빈의 경우 그가 교리교육을 강조한 이유는 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칼빈이 교리교육을 강조한 이유는 교인들이 성경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한다. 칼빈은 주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쳤다. 칼빈이 활동하던 16세기 제네바의 많은 사람들이 문맹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성경은 희귀했고 비쌌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소유했고 읽을 수 있었다.

한국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사경회(查經會)를 강조해왔고, 1970년대 이후에는 성경공부를 위해 힘써 모이고 있고, 개인 묵상시간(QT)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강의식 성경공부와 소그룹 성경공부, 개인 묵상시간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본문을 직접 상고(詳考)하는 것은 교리공부가 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형성은 교리공부를 통해서 보다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와 더불어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한국교회는 상대적으로 초대교회와 개혁교회가 강조해오던 신앙고백서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교리공부는 성경의 부분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신앙의 뼈대를 세우게 한다. 교리공부를 소홀히 할 때에 신앙생활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요동하며, 이단사설(異端邪說)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칼빈의 경우 그가 교리교육을 강조한 이유는
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칼빈이
교리교육을 강조한 이유는 교인들이 성경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제 한국교회는 성경강해 중심의 설교, 그리고 성경공부와 더불어 교리교육에 관심을 갖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교리교육 교재의 개발

교리는 성경의 근간이지만 또한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에 의해 부분적으로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 그리고 21세기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교회의 요리문답이 신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비록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단시간에 합의에 이르는 어렵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비중이 있는 한국적인 교리서와 신조를 작성하기 위한 시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속히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우선은 웨스트민스터 교리표준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오늘 한국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재는 교리표준 자체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국교회와 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학습자를 고려한 교리교육 과정

교육에는 준비성(readiness)의 원칙이 있다. 학습자의 인지능력이 준비되어지고, 또 학습자가 배우려는 관심과 의욕과 동기가 있을 때에 교육은 바람직한 결실이 있게 된다. 칼빈의 경우 《제1차 신앙교육서》는 서술형식으로 기록했으나, 스트라스부르그지역을 통해 부처의 영향을 받아 《제2차 신앙교육서》는 문답식으로 기록했다.

교리교육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교회생활을 시작하는 원입교인들에게 본격적인 교리교육을 부과하는 것은 그들의 준비성을 생각할 때에 바람직하지 않다. 원입교인들을 위해서는 현재 많은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새가족교육을 활성화시키거나, 복음서(예수님의 생애)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 학습교육이나 세례교육에서 성경읽기와 소요리문답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교리교육에 있어서 나선형구조(Spiral Curriculum)를 따르는 심화학습이 필요하다. 즉, 초신자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교리교육을 실시하고, 신자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입교(入敎 Confirmation) 준비교육] 또는 교사양성반이나 서리집사 임직의 과정에서 《소교리문답》을 가르친다. 다음으로 청년대학부 또는 권사와 안수집사 교육과정에 《대교리문답》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장로 임직 교육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단계학습 및 심화학습의 교과과정이 필요하다.¹⁾ (반드시 이 순서를 따라서 할 필요는 없고, 각 교회의 형편에 맞는 교과과정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1) 조성국, "이단문제에 대한 예방적 대책으로서의 교리교육", 유사기독교상담소, 《바른신앙》, 제10호 (2006), 25-27.

교리교육을 위해서는 요리문답을 설명하고 암기하도록 하는 주입식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오늘날 사람들의 심성을 고려하여 교수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종종 학습과 세례/입교 교육을 형식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다. 물론 특별한 경우 당회가 이런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적 규칙이 허락하고 있다.²⁾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학습과 세례/입교 교육을 강화하고, 당회가 심사하는 과정을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신앙고백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게 된다. 아울러 하나 됨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지니는 교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교리교육은 학습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심화학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교수 방법

교리교육을 위해서는 요리문답을 설명하고 암기하도록 하는 주입식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오늘날 사람들의 심성을 고려하여 교수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특별히 논리적 접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데서 벗어나서 실존적(학습자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 연역적인 방법 외에는 교리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귀납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발견학습과 협동학습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북돋우며 교리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신), 《헌법》(서울: 총회출판국, 1992), 260.

특별히 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교사를 양성하고 방법을 개발하고 시간을 확보하여 실행해야 한다.

교리교육과 설교현장

설교자는 성경을 중심으로 강해하며 적용하는 설교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설교자의 성경해석은 교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울러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교리를 언급해야 한다. 이로써 감정에만 근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체계를 세워나가는 방법을 설교자는 시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성국은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³⁾

교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도 설교와 교육은 전반적으로 교리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교육은 대부분의 경우 설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의 공적 설교가 교회의 공적 가르침(교리)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긴 맥락에서 체계적인 공적 교리 형성에 기여하는지 점검해야 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공적 가르침을 균형있게 제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혁교회는 매주 오후 또는 저녁 예배 시간에 교리설교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 한국교회도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주일 오후/저녁이나 수요 기도회 시 교리설교를 하는 방법도 시도해야 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같은 요리문답을 할 필요는 없겠으나, 3-5년을 주기로 한 번씩 반복함으로써 신앙고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3) 조성국, 23.

설교자는 자신의 공적 설교가 교회의 공적 가르침(교리)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긴 맥락에서 체계적인 공적 교리형성에 기여하는지 점검해야 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공적 가르침을 균형있게 제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리설교가 딱딱하고 지루하고 남는 것이 없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리설교는 힘들고 재미가 없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문제로부터 접근하는 실존적 방법을 사용한다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

교리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례

교회(당회)는 유아세례 시 세례 받는 어린이의 부모에 대해, 그리고 입교나 세례를 받으려는 이들에 대해, 교리에 대한 지식과 신앙(경건의 삶)을 비교적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移名)오는 교인들에 대해서도 교리 지식과 경건의 삶을 점검한 후 교회원의 자격을 주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찬예식의 참여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역장과 교구장을 중심으로 자기에 맡겨진 식구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를 통해서 교리와 경건의 삶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치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혁교회의 전통이 회복되어야 한다.

칼빈의 경우 그는 제네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찬예식 참여자를 분별하여 허락하였다. 그리고 권징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범죄한 성도들을 진리 위에 세우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한국교회도 성찬을

통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권징을 통해 부도덕한 행위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난 이들을 경책해야 한다.

목사는 장로들과 더불어 성찬예식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의 책임 분담과 성실한 협력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가정에서의 교리교육

칼빈은 신앙교백(교리)교육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가르치도록 했다.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보다 교회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은 구약(신6:4-9)과 신약성경(엡6:4)이 분명히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정의 신앙교육적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듯하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역할을 다시금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방과 후 교리학교

방과(放課)후 학교를 통해 담임목사나 부교역자가 학생들에게 교리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혁교회에 있어서 목사의 주요 임무 두 가지는 설교와 교리공부를 지도하는 일이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역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당에서 반경 2Km 내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백스터(Richard Baxter)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목사는 설교뿐만 아니라 가정 심방을 통하여 교인들의 설교에 대한
이해여부를 점검하고 성경과 교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참석 가능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기초를 확고하게 놓을 수 있다.

심방을 통한 교리교육

백스터(Richard Baxter)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목사는 설교뿐만 아니라 가정 심방을 통하여 교인들의 설교에 대한 이해여부를 점검하고 성경과 교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오늘날의 목회가 지나치게 프로그램과 이벤트 의존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러한 방법들도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회의 기초가 영혼의 돌봄(Seelsorge, soul caring)이라고 할 때에 목회자는 반드시 일대일의 관계 또는 가족 면담을 통해 신앙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⁴⁾

교리교육과 함께하는 경건생활

칼빈이 16세기 제네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교리교육에 힘쓴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그의 설교와 저술과 편지와 교회의 행정과 심방을 통한 목회 활동은 모든 목회자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4) 최병규, "리처드 백스터의 교리교육적 목회와 교회의 이단대응 능력 증진과의 상관성에 관한 소고", 유사 기독교상담소, 30-47.

다. 제네바 교회가 약 150년간 이러한 칼빈의 개혁정신을 이어갔다. 그러나 루터파의 경우,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 경향은 성도들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었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였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독일지방을 중심으로 17세기에 경건주의운동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혁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래토레트는 이렇게 설명한다.⁵⁾

루터파 사이에서는 점점 더 교리(敎理)를 강조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조류(潮流)는 신앙을 신조의 규약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일종의 '개신교 스킨라철학'(Protestant Scholasticism)인 신학적 토론을 루터가 생각했던바 신앙의 자리에 대치시켰는데, 즉 루터에 의하면, 신앙은 지식(知識, intellect)의 단 한 부분이 아닌 전인(全人, the entire man)의 헌신을 의미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써 17세기에 경건주의(敬虔主義, Pietism)가 일어났다. 경건주의는 감정을 강조했고, 의지의 복종과 개종(conversion)을 부각시켰다. 또한 '역사적 고백들'(the historic confession)에 대체로 동조하면서도 이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이러한 역사가 주는 교훈은 진정한 경건을 상실한, 교리에만 국한된 매마른 정통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성경과 교리에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한 열정-표출되거나 내재적일 수도 있는-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배를 포함한 신앙생활에서 감정의 표현을 과장하거나 억압하는 태도를 지양(止揚)해야 한다. 아울러 언약신학에 근거하여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신앙교육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5) 케니스 래토레트, 윤두혁 역, 《기독교사(중)》(서울: 생명의말씀사, 1980), 355.

한국교회는 성경과 교리에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한 열정-표출되거나
내재적일 수도 있는-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세계선교에 대한 헌신과 수고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꿈과 열정과 헌신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가는 말

한국교회는 교리교육을 등한시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초대교회와 개혁교회의 유산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경공부는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과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계속 강조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앙고백 교육은 한국교회의 개혁과 성장을 위해 꼭 회복되어야 할 일이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와 그 교리를 교인들에게 성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교인들이 성경과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경건의 삶을 회복할 때에, 한국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구원의 방주로서, 그리고 성도들의 학교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근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성경과 교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치며 경건의 삶으로 인도할 때에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지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